

아시아교육연구 20권 1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1, pp. 251-270.

<https://doi.org/10.15753/aje.2019.03.20.1.251>

# 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유형 탐색

이재열(李在烈)\*

## 논문 요약

이 연구는 대학 강의에서 나타나는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고,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한 프로파일분석 기법인 PAMS(Profile Analysis via Multidimensional Scaling) 분석을 실시하여 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유형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3개 영역,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교수-학생 상호작용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강의에서 인식한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 333명의 대학생이 응답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같은 강의를 수강한 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인식을 유형화하고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유형은 크게 3가지 대표적 프로파일로 확인되었으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내용 영역 부족형', '행동 영역 부족형', '맞춤형 행동 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3가지의 프로파일 유형은 동일한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개인마다 인식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고 주목하는 측면이 다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학생 개인이 인식한 상호작용의 수준은 3가지 대표 프로파일로 상당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고,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의 인식 유형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교수-학생 상호작용, 프로파일분석, PAMS, 교수, 대학생

## 1. 서론

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의 하나인 교수자와 학습자는 각자가 처한 상황과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육활동이나 수업에 대한 요구도 다르고 수업에 만족감을 갖게 되는 원인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이 모여서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만들어가는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 즉 좋은 수업을 실행하여 만족스러운 성과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좋은 강의란 무엇이며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있었고, 그 대답 또한 다양한 입장과 내용으로 제시되어져 왔다(민혜리, 이희원, 2011).

지금까지 좋은 강의를 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원리로 제시된 결과는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새로운 교육방법이나 매체를 적용하는 등 교수자의 입장에서 강의의 내용구성과 전달방식을 변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방법 또는 교육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전반적인 강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효과가 높은 선진적인 교육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강의를 통해 발생하는 전체적인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수가 갖추어야 할 태도 및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교수역량을 개선·향상시켜야 함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이재열, 백순근, 2017). 이러한 접근은 강의의 구성이나 교육환경과 같은 시스템적 변화 외에도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자의 능동적 변화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강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좋은 강의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초점을 두어 학생의 강의평가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학생의 요구를 분석하고 학습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공급자의 입장에서 좋은 강의를 설계하고 구성한다고 해서 교육의 효과나 성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변화와 성장을 체감하고 좋은 강의로 인식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대학에서 정기적인 강의평가를 비롯하여 수요자만족도조사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입장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연구와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요구하는 좋은 강의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학생의 상황이나 강의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김민성, 2012; 민혜리, 이희원, 2011; 박민정, 2008; 오정숙, 2015; 정은이, 2010). 예컨대, 강의 내용 구성의 차별성이나 체계성, 강의 운영의 기술 및 태도, 교수와의 상호작용, 강의의 결과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과제와 평가 및 피드백 등 좋은 강의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다(민혜리, 이희원, 2011). 그리고 강의 내에서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과 같이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소들도 있지만, 학생들은 재밌는 강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교수는 깨달음이나 내용 전달을 더 중요시하는 등 교수와 학생 간에 서로 다른 인식을 보이기도 한다(정은이, 2010). 따라서, 좋은 강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인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구성 및 운영하며 교수와 학생 간의 인식 격차를 좁혀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 강의에서의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은 교육 내용이나 학문 분야의 특성, 교수의 전문성, 학생의 반응 등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교수-학생 상

호작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특정 행동이나 양상의 발생 빈도를 중심으로 주로 평가하였는데(최보금, 2016; 홍지인, 배상훈, 2015), 이러한 접근은 교수-학생 상호작용 평가의 용이성을 높이고 발생한 상호작용 수준의 높고 낮음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학생의 상호작용 인식 유형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거나 실질적으로 발생한 상호작용의 양상이나 유형을 자세하게 그려내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최근 연구의 하나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영역을 행동, 내용, 정서의 3가지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평정척도를 제안하였으며(이재열, 2018), 이를 통해 학생이 인식한 상호작용의 특성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실제 대학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특징은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일한 강의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다양한 상호작용 인식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맞춤형 강의 방법의 적용과 교수자의 상호작용 방식의 개선 또는 변화를 실시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 강의에서 나타난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유형을 탐색하고, 대표적으로 추출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일한 교수에 의해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된 대학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생 상호작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여 대표적 인식 유형을 확인하며, 해당 인식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이 인식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유형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울러 대학 강의의 상호작용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고찰

### 1. 좋은 강의와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에서의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양상은 중등학교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조금 더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다. 중등학교에서의 수업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 전달을 주요 목적으로 삼아 교수자가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면, 대학 강의는 교수자가 강의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유사하되 학생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생각이 발현되어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작용을 실시하며 함께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이 학습자 중심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고,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개별 학생의 학습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수업이 질 높은 강의로 인식되고 있다(송충진, 2014).

그런데 지금까지 좋은 강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주로 교수자의 역량이나 조건을 살펴보고 변화시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대표적인 접근 방식은 좋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교수역량이 갖추어 지고 개선·향상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교수가 강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원활하게 진행하며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학생과 상호작용하며 평가와 피드백할 때 좋은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강의의 계획, 방법, 운영, 평가에 있어 높은 수준의 교수역량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교수역량의 구성요인으로는 계획과 조직, 의사소통, 학생과의 상호작용, 최신화된 교수법, 환경 조성 및 운영, 평가와 피드백 등의 능력과 성의와 열의 및 개방적인 태도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김정환, 이계연, 2005; 이재열, 백순근, 2017; 정은이, 2010; Borich, 2015).

하지만 뛰어난 교수역량을 갖춘 교수가 강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강의의 질이 확보되거나 강의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교수-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평가 주체나 대상 선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교수자와 함께 중요한 주체로서 강의에 관여하는 학생은 제공된 강의의 수준에 대해 교수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송충진, 2014). 관련하여 Feldman(1988)의 연구는 대학 교수와 학생이 꼽은 좋은 강의의 내용과 특성에 대한 중요도가 일치하지 않음을 일찍이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강의의 질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좋은 수업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들이 인식한 좋은 강의의 특성은 무엇인지 밝힌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학생이 제시한 좋은 강의의 대표적인 특성은 지적·내용적 만족을 비롯하여 충실한 준비, 다양한 수업방법, 개방적 의사소통, 상호작용, 재미와 흥미, 배려와 존중, 피드백 등으로 나타났다(김민성, 2012; 민혜리, 이희원, 2011; 박민정, 2008; 정은이, 2010).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교수자의 입장에서 좋은 강의를 정의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도 다수 확인되지만, 질 높은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초점이 교수와 다르거나 중요도의 순위에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좋은 강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이다. 강의의 내용 준비나 계획, 강의 구성 및 운영의 기술, 강의를 진행하는 열의와 성의 등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지만, 내용적·방법적·환경적으로 잘 준비된 강의가 높은 성과와 만족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강의에 참여하는 교수와 학생 간의 원활하고 풍부한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한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교수나 학생 어느 입장에서도 좋은 강의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교수와 학생이 공통적으로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1순위로 제시한 정은이(2010)의 연구 결과는 좋은 강의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의에서 교수와 학생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의 방법과 빈도, 강도 등은 교수와 학생의 특성이나 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학생을 수업에 참여시키며 상호 간 관심을 가지며 교류하고 활동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빈번할 때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민혜리, 이희원, 2011; 박민정, 2008; 오정숙, 2015; Astin, 1993; Kuh & Hu, 2001).

## 2.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평가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교수와 학생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질 높은 강의를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강의 내용이나 방법,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인식되기 때문에,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어떤 방식이나 도구로 판단하는가에 따라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결과도 달라지고 교수와 학생의 인식 유형과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이재열, 2018). 따라서 강의에서 일어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형태와 특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구성요인과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호작용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측정·평가해 온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발생한 빈도를 관찰하거나 수량화하여 보고함으로써 상호작용의 양상이나 수준을 측정·평가하는 것이다. 한국교육중단연구(KELS)에 수록된 교수-학생 상호작용 문항이나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의 상호작용 측정 척도와 같이 대규모의 학생을 대상으로 상호작용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주로 많이 활용하였으며(김세희, 고장완, 2011; 배상훈 외, 2015; 최보금, 2016; 최정운, 신혜숙, 2010), 개별 강의에서 발생한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평가할 때도 상호작용 행동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민혜리, 이희원, 2011; 송충진, 2014; Kuh & Hu, 2001). 이와 같은 발생 빈도 중심의 평가는 상호작용의 양상과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호작용의 상황이나 강의실 내 분위기 및 상호작용에 대해 체감하는 실제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렵고 학생의 인식과 감정을 충실하게 이해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이재열, 2018; Cotten & Wilson, 2006). 그래서 또 다른 평가 방식으로 제시되는 것은 강의에 참여한 교수나 학생이 느끼는 상호작용의 분위기나 친밀감, 도움이 되는 정도 등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여 만족도나 수용도 등으로 척도화하거나, 질적으로 접근하여 인터뷰 등을 통해 해석하는 것이다(김민성, 2012; 박민정, 2008; 송윤정, 조규판, 2016; Kim & Sax, 2009; Lungberg & Schreiner, 2004). 이와 같은 접근은 상호작용의 실질적 양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학생들이 인식한 상호작용의 질적 특성을 확인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대표적 특성을 유형화하여 드러내기가 다소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재열(2018)의 연구에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도구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행동, 내용, 정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정척도를 제시함으로써, 교수나 학생이 강의에서 인식한 상호작용의 양상과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발생 빈도나 정서적 만족감의 하나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개인이 인식한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양상을 다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상호작용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그것의 차이나 영향력 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새롭게 제안된 평가도구의 활용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상호작용의 다양한 유형이나 변화하는 양상을 파악하고 유형화하기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교수가 하나의 의도나 목표를 갖고 상호작용 행동이나 기제를 투입하였을 때, 학습자가 인식하는 양상의 차이나 변화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구체화 된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좀 더 자세하게 상호작용의 양상과 수준을 이해할 수 있고 교수와 학생의 인식 유형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유의미한 평가 결과의 활용과 환류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이재열, 2018). 다만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중요도나 발생 빈도 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일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Kim & Sax(2007)의 연구와 같이, 대학생의 성별이나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같은 배경변인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들은 있었으나, 학생들이 인식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유형을 그려내고 설명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대학 강의에서 나타나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상호작용 유형을 밝히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양상과 인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대학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인식한 교수-학생 상호작용 유형을 탐색하기 위해, 2018년 2학기에 동일 교수의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한 대학생 333명을 대상으로 교수-학생 상호작용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계획된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해당 강의에서 인식한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사전 교육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에 참여한 333명의 대학생은 성별로 남학생 148명(44.4%), 여학생 185명(55.6%)으로 구성

되었으며, 학년별로 2학년이 227명(68.2%), 3학년은 40명(12.0%), 4학년은 66명(19.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에서 발생한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이재열(2018)이 개발한 대학생용 교수-학생 상호작용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평정척도는 상호작용을 행동, 내용, 정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한 것이다. 학생들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형 평정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의 형태로 자신이 인식한 상호작용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 문항 및 평정척도는 <표 1>과 같다.

<표 1> 교수-학생 상호작용 평정척도(이재열, 2018)

차 원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행 동	1 자연스러운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2 발표나 의견 표출이 장려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습을 위한 질문이 활성화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달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원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개인의 움직임에 대해 교수가 반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내 용	1 강의 내용의 파악과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교과 내용의 성취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교과 내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생각이나 관점의 폭이 넓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정 서	1 강의 중에 스스럼없이 다가갈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질문하거나 의견을 주고받기 편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상호 간에 이해와 공감의 분위기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 강의 내에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율적으로 표현하거나 활동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선행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911로 보고되었으며(이재열, 2018), 이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 는 .924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도 Cronbach's  $\alpha$  지수가 행동 영역 .834, 내용 영역 .868, 정서 영역 .898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측정 도구의 신뢰도

영역	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행동	5	3.68	.688	.834
내용	5	4.14	.612	.868
정서	5	3.85	.745	.898
전체	15	3.85	.588	.924

### 3.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유형을 탐색하기 위해, 상호작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총 333명의 대학생이 평가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생이 인식한 상호작용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측정도구에 포함된 15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모두 활용하여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한 프로파일분석(PAMS: Profile Analysis via Multidimensional Scaling)을 실시하였다.

PAMS 분석은 하위 변인 점수들의 유형을 분석하여 응답자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변별하는 프로파일분석법의 하나이며(박현정, 양명희, 2007), 대표적 프로파일의 도출뿐만 아니라 개인 프로파일과 대표 프로파일 간 유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응답 유형 탐색에 장점을 보이는 방법이다(박경인 외, 2013). 따라서 PAMS 분석은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들의 개인별 인식 유형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개인 및 유형별 차이를 파악하여 교수나 학생에게 피드백하기에 적합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분석법의 하나이다.



## IV. 연구 결과

### 1. 교수-학생 상호작용 평가 결과

대학생들이 강의에서 인식한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반적으로 내용 영역의 문항에 대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행동이나 정서 영역에 비해 내용 영역에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문항 응답을 살펴보면, ‘생각이나 관점의 폭이 넓어졌다(내용5)’고 인식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내용4)’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호작용의 과정이나 양상에서 ‘학습을 위한 질문이 활성화되었다(행동3)’는 문항은 상대적으로 가장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강의 중에 스스로없이 다가갈 수 있었다(정서1)’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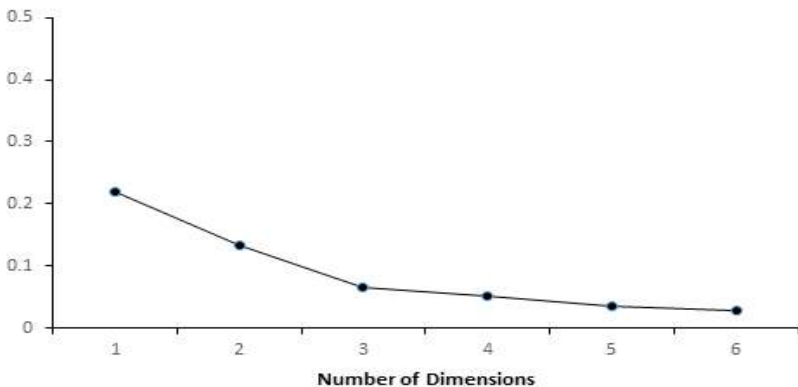
<표 3> 교수-학생 상호작용 평가 결과 기술통계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행동1	3.74	0.783	1.00	5.00
행동2	3.71	0.947	1.00	5.00
행동3	3.56	0.905	1.00	5.00
행동4	3.77	0.869	1.00	5.00
행동5	3.63	0.920	1.00	5.00
내용1	4.13	0.666	2.00	5.00
내용2	4.13	0.730	2.00	5.00
내용3	4.09	0.816	2.00	5.00
내용4	4.14	0.782	2.00	5.00
내용5	4.20	0.783	2.00	5.00
정서1	3.56	0.918	1.00	5.00
정서2	3.66	0.926	1.00	5.00
정서3	3.82	0.852	1.00	5.00
정서4	3.92	0.791	2.00	5.00
정서5	3.62	0.922	1.00	5.00

## 2. 교수-학생 상호작용 인식 유형 탐색

### 1) 학생이 인식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대표적 프로파일 추출

학생이 인식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프로파일을 추출하기 위해, 15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PAMS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통해 확인된 차원의 개수에 따른 Kruskal의 stress 지수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stress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적절하고 설명량(R-square)도 증가하는데,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stress 지수가 급격하게 꺾이는(elbow) 지점인 3개의 차원으로 이 연구에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인식 유형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Culpepper & Davenport, 2009). 3개의 차원으로 다차원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stress 지수는 0.0663, R-square는 97.1%였다.



[그림 1] 차원 결정을 위한 stress p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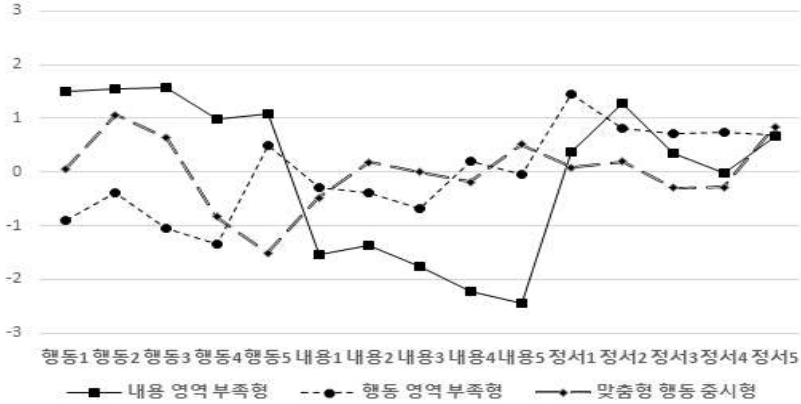
교수-학생 상호작용 인식 유형을 탐색하고자, 도출된 3개의 차원에 따라 다차원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 연구에서 응답한 대학생들은 크게 3가지 유형의 프로파일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프로파일은 행동 영역은 높지만 내용 영역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이는 유형으로 ‘내용 영역 부족형’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파일은 상호작용의 발생 양상이나 빈도는 만족하지만 상호작용의 내용적 측면에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반응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프로파일은 행동 5번 문항을 제외한 행동 영역은 낮지만 정서 영역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이는 유형으로 ‘행동 영역 부족형’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파일은 교수와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교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지만 상호작용 행동의 횟수나 강도를 체감하지 못하는 반응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프로파일은 행동 2번과 3번에 대한 반응은 높은 반면

행동 4번과 5번은 낮은 인식을 보이는 유형으로 ‘맞춤형 행동 중시형’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파일은 내용이나 정서 영역보다는 기존 교수-학생 상호작용에서 주로 많이 강조하였던 행동 영역을 중심으로 반응하는데, 질의응답이나 발표 등 강의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교수의 상호작용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을 보인 반면 학생 개인의 학습 상태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상호작용 노력을 기울이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응답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 반응한 학생들은 상호작용 행동 양상을 전체적인 것인지 개별화된 것인지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교수와 학생 개개인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상호작용 행동 중 맞춤형 행동을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교수-학생 상호작용 인식 유형에 대한 PAMS 분석 결과

영역	문항번호	내용 영역 부족형	행동 영역 부족형	맞춤형 행동 중시형
행동	행동1	1.49	-0.91	0.05
	행동2	1.54	-0.38	1.07
	행동3	1.58	-1.05	0.64
	행동4	0.99	-1.35	-0.83
	행동5	1.08	0.49	-1.51
내용	내용1	-1.54	-0.28	-0.48
	내용2	-1.36	-0.39	0.18
	내용3	-1.77	-0.69	0.00
	내용4	-2.23	0.21	-0.18
	내용5	-2.44	-0.04	0.51
정서	정서1	0.37	1.44	0.08
	정서2	1.27	0.82	0.20
	정서3	0.36	0.72	-0.29
	정서4	-0.01	0.73	-0.28
	정서5	0.67	0.70	0.84

프로파일분석 결과에 따라 도출된 3가지 대표 프로파일 유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이를 통해 대표적 3가지 프로파일 간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내용 영역 부족형’ 프로파일은 내용 영역이 특히 낮게 인식되는 유형임을 알 수 있고, ‘행동 영역 부족형’ 프로파일은 상대적으로 정서 영역이 높게 인식되는 유형이며, ‘맞춤형 행동 중시형’ 프로파일은 내용과 정서 영역의 대부분 반응이 평균에 수렴하는 특징이 있으나 행동 영역 내에서의 인식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교수-학생 상호작용 인식 유형의 대표적 프로파일

2) 응답자 프로파일 유사성 지수 분석 및 개인별 프로파일 분석

다차원분석 결과에 따라 교수-학생 상호작용 인식 유형을 크게 3가지 프로파일로 도출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앞서 추출된 대표적 프로파일에 대해 응답자 개인들의 관찰된 프로파일들이 얼마나 유사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응답자 프로파일 유사성 지수를 분석한 기술통계 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응답자 프로파일의 전반적 높이를 나타내는 수준 모수를 살펴보면 최소 -2.19에서 최대 1.36까지 다양한 인식을 보이며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3가지 유형의 대표 프로파일과의 유사성 지수를 통해서도 응답자 개인별로 어떤 프로파일과 비슷한지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AMS 분석을 통해 추출된 3가지 대표 프로파일을 적용하여 응답자 학생들의 실제 프로파일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량이 42%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PAMS 분석 결과 추정된 응답자 모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내용 영역 부족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333	0.00	0.241	-0.95	0.58
'행동 영역 부족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333	0.00	0.319	-0.81	1.01
'맞춤형 행동 중시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333	0.00	0.319	-1.09	0.96
수준 모수	333	0.00	0.698	-2.19	1.36
R-square	333	0.42	0.234	0.02	0.92

이와 같이 PAMS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응답자 프로파일의 대표적 유형을 살펴보고자, 응답자 중 일부 학생들의 프로파일을 선택하여 모수 추정치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예컨대, 23번 학생은 ‘내용 영역 부족형’ 프로파일과 유사성이 높은 유형이며, 대표 프로파일에 의한 설명량은 92%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유사성 지수가 -0.95로 음의 값이 크게 나타나 역상 프로파일(mirror image profiles)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대표 프로파일과 반대로 해석해야함을 의미한다(박현정, 양명희, 2007). 즉, 내용 측면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행동 빈도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내용 영역 만족형으로 볼 수 있다. 65번 학생은 ‘행동 영역 부족형’ 프로파일에 가까워 정서적인 친밀감이나 이해를 높게 인식하는 유형이며, 수준 모수가 0.54로 큰 편이어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82번 학생은 ‘맞춤형 행동 중시형’ 프로파일에 가깝고 역상 프로파일 이어서 응답자 개인과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2번 학생은 ‘내용 영역 부족형’ 프로파일 및 ‘행동 영역 부족형형’ 프로파일의 2가지와 유사성이 모두 높은 반면 해당 프로파일들에 의한 설명량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어서 이를 고려해야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9번 학생은 전반적인 설명량 자체는 큰 편이지만, 모든 대표 프로파일과의 유사성 지수가 어느 정도 높으면서 역상 프로파일도 나타나는 유형이므로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한 프로파일의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표 6> 5명의 학생에 대한 개인 모수 추정치

ID	‘내용 영역 부족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행동 영역 부족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맞춤형 행동 중시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수준 모수	R-square
23	-0.95	-0.30	0.11	-0.83	0.92
65	0.27	0.62	0.11	0.54	0.82
82	-0.49	0.03	-1.09	0.32	0.77
202	0.58	0.71	0.24	0.59	0.77
199	-0.36	0.61	-0.77	-0.13	0.91

### 3) 성별에 따른 인식 유형의 차이 분석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인식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집단 간 개인 모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앞서 PAMS 분석을 통해 대표 프로파일에 대한 개인별 유사성 지수를 도출하였는데, 남녀 간 개인 모수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내용 영역 부족형’ 프로파일에 대한 유사성 지수에는 남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그 외의 2가지 프로파일에 대한 유사성 지수와 수준 모수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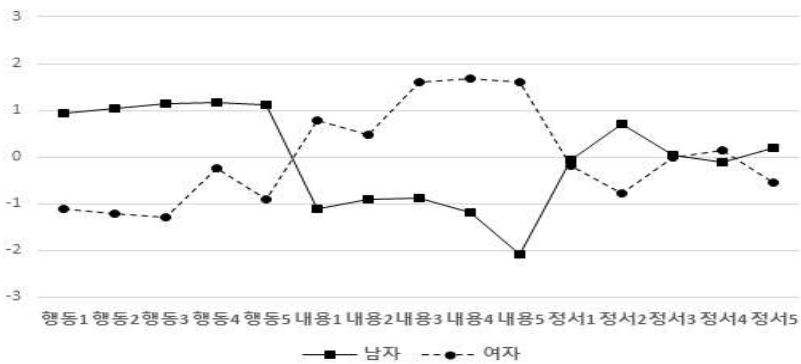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성별에 따른 추정된 모수의 차이 분석 결과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내용 영역 부족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남자	148	0.05	0.259	3.202**
	여자	185	-0.04	0.220	
'행동 영역 부족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남자	148	0.02	0.340	1.203
	여자	185	-0.02	0.301	
'맞춤형 행동 중시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남자	148	0.03	0.326	1.697
	여자	185	-0.03	0.312	
수준 모수	남자	148	-0.07	0.715	-1.693
	여자	185	0.06	0.680	

\*\*p<.01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별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평균적인 프로파일을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척도점수는 서로 대칭적인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역상 프로파일과 같이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내용 영역에서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행동 영역의 경우에도 문항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성별에 따른 교수-학생 상호작용 인식의 평균적 프로파일

## V. 요약 및 논의

대학 강의에서 실제로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교수가 의도한 상호작용이 학생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거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 간에도 상호작용을 체감하는 수준이나 강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강의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나타난 상호작용의 수준과 양상을 제대로 이해하여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강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이 인식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유형을 탐색하고 특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종합적으로 구성된 대학생용 교수-학생 상호작용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대학생이 상호작용 인식을 조사하고,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한 프로파일분석법인 PAMS 분석을 적용하여 대표적인 인식 유형을 탐색하였다.

동일한 교수자의 대학 강의를 실제 수강한 333명 대학생들의 상호작용 인식을 유형화한 결과, 크게 3가지의 대표적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내용 영역 부족형’ 프로파일로 명명하였으며, 상호작용의 행동적인 측면은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내용적인 측면은 체감하는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교수의 상호작용 내용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행동 영역 부족형’ 프로파일로 명명하였으며, 상호작용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 강한 인식을 가진 반면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교수가 실시하는 상호작용 행동 빈도나 활동의 체감 정도에 주목하는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는 ‘맞춤형 행동 중시형’ 프로파일로 명명하였으며, 행동적인 측면에서 전체 학생들에 대한 상호작용과 개인 학생에 대한 상호작용의 인식이 다른 방향성을 띄고 있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내용이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반응을 보이나 교수의 상호작용 행동 유형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전체 학생에 대한 일반적인 상호작용 행동이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으나 학생 개인과 주고받는 상호작용 행동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므로 맞춤형 행동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3가지 프로파일로 나타나는 분석 결과는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 내에서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일한 교수의 강의일지라도 상호작용의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체감하고 인식하는 유형과 수준이 다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자별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개인마다 대표 프로파일과의 유사성이 상이함을 발견하였고, 남녀의 인식은 역상 프로파일 형태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유형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대학 강의에서 교수와 학생이 주고받는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여 유형화하고, 그것의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실제적인 양상이나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상호작용의 활성화나 다양화의 방법을 계획

하고 적용하기 위한 방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며, 잠재적으로 인식되던 상호작용이라는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강의 중 또는 이후에 학생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파악하여, 상호작용의 목표나 방향성, 방법 등을 맞춤형으로 변화시키는 피드백으로 투입한다면 학생들이 추구하는 좋은 강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유형을 탐색하였으므로,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강의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탐색적 분석과 유형화의 결과에 따라 실제 강의만족도나 수업태도 등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혹은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강의에서의 성취가 달라졌는지 등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한편, PAMS 분석을 사용하여 탐색적으로 유형을 확인하는 것 외에 확증적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다양한 특성의 상호작용의 유형이 이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도출한 것과 유사한지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교수와 학생이 강의에서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강의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상호작용 인식 유형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민성(2012). 대학생이 인식하는 ‘배려하는 교수자’의 특성 및 유형 분석. **교육심리연구**, 25(1), 61-86.
- 김세희, 고장완(2011). 학생 및 대학 특성이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학연구**, 54(4), 263-293.
- 김정환, 이계연(2005).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교사 수업능력 자기평가 방략에 관한 논리적 고찰. **교육평가연구**, 18(3), 19-38.
- 민혜리, 이희원(2011).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강의의 특성 연구: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의 강의 체험 분석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19(1), 57-88.
- 박경인, 정승원, 신안나(2013). 초·중학생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 학교적응 및 학업 성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2), 91-118.
- 박민정(2008). 대학에서의 좋은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 **인문학연구**, 75, 229-253.
- 박현정, 양명희(2007). 다차원적도법을 활용한 탐색적 프로파일 분석: 중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변인을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20(4), 121-137.
- 배상훈, 강민수, 홍지인(2015). 한국 대학생의 학습참여 진단을 위한 미국 NSSE 모델 도입 및 타당화. **아시아교육연구**, 16(4), 77-104.
- 송윤정, 조규판 (2016). 대학생의 내재적 전공선택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4(4), 61-77.
- 송충진(2014). 대학에서의 교수-학습활동과 의사소통, 수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교수자와 학습자간 인식차이와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5(2), 171-200.
- 오정숙(2015). 플립드 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경험과 인식. **한국교육문제연구**, 33(4), 1-23.
- 이재열(2018). 대학생용 교수-학생 상호작용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1003-1020.
- 이재열, 백순근(2017). 행동지표 제시형 실천적 교수역량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30(4), 665-691.
- 정은이(2010). 대학에서의 좋은 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교육방법연구**, 22(3), 25-44.
- 최보금(2016). 교수-학생 상호작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 특성 및 대학 초기 경험 분석. **한국교육**, 43(1), 185-208.
- 최보금, 조성희(2014). 대학생의 교수-학생 및 동료학생간의 상호작용 유형 변화에 따른 자기결정성 동기 분석. **교육학연구**, 52(3), 29-54.

- 최정윤, 신혜숙(2010). 한국 대학에서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성격과 대학교육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 대학 특성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7(2), 131-154.
- 홍지인, 배상훈(2015).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33(3), 351-379.
- Astin, A. W. (1993).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Borich, G. D. (2015). *Effective teaching methods: Research-based practice (8th ed.)*.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Inc.
- Choi, B. K., & Rhee, B. S. (2014). The influences of student engagement, institutional mission, and cooperative learning climate on the generic competency development of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Higher Education*, 67(1), 1-18.
- Cotten, S. R., & Wilson, B. (2006). Student-faculty interactions: Dynamics and determinants. *Higher Education*, 51(4), 487-519.
- Culpepper, S. A., & Davenport, E. C., Jr. (2009). Identifying Common High School Coursework Profiles with Multidimensional Scaling. *IR Applications*, 20, 1-18.
- Davison, M. L., Gasser, M., & Ding, S. (1996). Identifying major profile patterns in a population: An exploratory study of WAIS and GATB patterns. *Psychological Assessment*, 8(1), 26-31.
- Feldman, K. A. (1988). Effective college teaching from student's and faculty's view: Matched or mismatched prioritie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28(4), 291-344.
- Kim, S-K., & Davison, M. L. (2000). Application of PAMS (Profile Analysis via Multidimensional Scaling) model to constructing cognitive ability pattern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LA. (ERIC Document Reproduction No. ED 480139)
- Kim, S-K., Frisby, C. L., & Davison, M. L. (2004). Estimating cognitive profiles using profile analysis via multidimensional scaling (PAM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4), 595-624.
- Kim, Y. K., & Sax, L. J. (2007). Different patterns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in research universities: An analysis by student gender, race, SES, and first-generation status. CSHE Research and Occasional Paper Series.
- Kim, Y. K., & Sax, L. J. (2009). Student-faculty interaction in research universities: differences by student gender, race, social class, and first-generation statu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50(5), 437-459.

- Kuh, G. D., & Hu, S. (2001). The effects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in the 1990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24(3), 309-332.
- Lundberg, C. A., & Schreiner, L. A. (2004). Quality and frequency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as predictors of learning: An analysis by student race/ethnici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5(5), 549-565.
- Sax, L. J., Bryant, A. N., & Harper, C. E. (2005). The differential effects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on college outcomes for women and 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6), 642-657.

\* 논문접수 2019년 2월 7일 / 1차 심사 2019년 3월 8일 / 게재승인 2019년 3월 21일

\*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역량평가, 교사평가, 교육프로그램평가 등이다.

\* E-mail: pure9051@nate.com

Abstract

## Exploring Profile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about Faculty-Student Interaction

Lee, Jae-ye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tudents' perception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in university lectures, and to explore profile patterns of perceptions applying PAMS (Profile Analysis via Multidimensional Scaling) model. For this purpose, the faculty-student interaction was assessed by 333 college students using rating scales with 3 domains and total 15 items. The results of responses were analyzed statistically applying PAMS model, types of perceptions were identified as three representative profiles. They were named 'insufficient content domain type', 'insufficient behavior domain type', and 'customized behavior emphasis type' according to each profiles' characteristics. These diverse types of profiles suggested that the level of perceptions about same interaction may vary, and the aspects to be noted may be different from person to person. In addition, the level of each student's perception can be explained by these representative three profiles. Also, the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were verified in some profiles.

Key words: Faculty-Student Interaction, Profile Analysis, PAMS model, Faculty, College Student

---

\* First Author, Researc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